격랑 넘어 제도 안착…32년의 발자취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② 총무원장 선거의 역사

특별취재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 안팎의 여러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끝에 제도로 안착됐다. 사진은 2022년 9월 열린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퇴임식(왼쪽)과 같은 해 10월 열린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기본 틀은 19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마련됐다. 제25대·26대 총무원장을 지낸 의현 스님은 1994년 '상무대 비리 의혹 사건'으로 종단이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3선에 나섰다. 이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선우도량 등 8개 단체는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를 구성해 의현 스님의 퇴진을 촉구했다.

94년 종단개혁 '간선제' 도입

총무원과 범종추 사이의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지만, 범종추가 개최한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의현 스님이 총무원장에서 물러나면서 개혁회의가 출범했다. 개혁회의는 탄성 스님을 상임위원장 겸 제27대 총무원장으로 추대하고 종헌·종법을 대폭 개정했다. 총무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참종권 강화를 위해 중앙종회의원과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각 10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도입했다.

개정 종법에 따른 첫 선거는 1994년 11월 21일 실시됐다. 월주 스님과 월탄 스님이 출마한 가운데 월주 스님이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새 집행부는 '개혁종단'으로 불렸다. 개혁종단은 교육원·포교원 별원화, 승가교육체계 정비, 사찰운영위원회와 중앙신도회 구성, 교구자치제 시행 등 굵직한 개혁을 추진했다.

98년 종단사태로 선거 파행

안정을 찾아가던 종단은 1998년 다시 큰 혼란을 맞았다.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 연임 도전에 나서자 '3선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월주 스님은 1980년 제17대 총무원장 재임 당시 신군부가 일으킨 10·27법난으로 물러난 바 있기에, 재임할 경우 사실상 3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대 측과 집행부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 이른바 '98년 종단사태'다. 중앙종회가 11월 12일을 선거일로 정했지만 갈등이 계속되자 월주 스님은 11월 19일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도법 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를 대행한 가운데 같은 해 12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고산 스님이 지선 스님을 누르고 제29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중앙종회가 '소집일 7일 전 종단기관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생략한 채 개회해 선거 일정을 결정한 것이 훗날 고산 스님의 발목을 잡았다. 1999년 10월 1일 법원은 정화개혁회의 측이 제기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총무원장 선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산 스님은 항소를 포기했고, 원택 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999년 11월 15일 다시 선거를 치렀다.

종책모임, 종단 정치 한 축으로

재선거에는 정대 스님과 지선 스님이 맞붙어 166표를 얻은 정대 스님이 제30대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청림회와 무등회, 육화회와 일여회 등 종책모임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오늘날 총무원장 선거 구도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됐다.

정대 스님은 재임 기간 중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며 종단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임기를 10개월여 앞둔 2003년 1월 15일, 동국대학교 이사장 소임을 맡기 위해 총무원장에서 물러났다.

2003년 치러진 선거에는 법장 스님과 종하 스님이 입후보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 주최로 첫 '총무원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법장 스님이 179표를 얻어 제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법장 스님은 종단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 문화부장에 비구니 스님을 임명하고,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협심증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이던 2005년 9월 11일 갑작스레 원적에 들었다.

4년 임기 마치고 안정적 교체

그해 10월 31일 치러진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지관·정련·법열·월서·대우·각명·장주 스님이 출마했다. 선거는 종책모임의 지원을 받은 지관 스님과 정련 스님의 양자구도로 전개됐고, 지관 스님이 19표 차이의 접전 끝에 당선됐다.

지관 스님은 2008년 8월에는 20만 불자가 운집한 가운데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출범 △10·27법난 명예회복심위원회 발족 등을 추진했으며,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09년 10월 30일 퇴임했다.

논란 속 8년 연속 임기 수행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8년 연속 총무원장 임기를 수행했다.

제30대 총무원장 정대 스님의 상좌인 자승 스님은 주요 종책모임의 지지를 받아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종하·월서·도영 스님이 불출마함에 따라, 자승 스님은 유효투표 317표 가운데 290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자승 스님은 임기 중 대사회적 행보를 이어가고 수행연금 지원, 승려 사후 사유재산 종단 귀속 등 주요 종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봉은사 직영 전환 사태,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사태, 백양사 도박 사건 등 종단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 해에 자승 스님은 "재임에 관심이 없고 남은 임기에도 연연치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재임에 나섰다. 이후 보선 스님과의 맞대결 끝에 179표를 얻어 제34대 총무원장에 연임됐다.

재임 기간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94년 멸빈 징계를 받은 의현 스님에 대한 재심 결정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동국대 총장 선출 과정에 제기된 강압 논란, 본사 주지의 범계 및 금권선거 의혹 등 혼란한 상황을 마주했지만 8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퇴임 후에도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 봉은사 회주, 상월결사 회주, 불교광장 총재 등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다.

종회 '총무원장 불신임' 결임

2017년 10월 12일 실시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설정 스님과 수불 스님이 경합을 벌인 끝에 설정 스님이 당선됐다.

그러나 설정 스님은 선거운동 당시 제기됐던 학력 위조 의혹과 범계 논란을 끝내 넘지 못했다. 종단 내 갈등이 거세지자, 중앙종회가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내린 것. 설정 스님은 결국 취임 10개월 만에 총무원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총무부장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기 선거가 치러졌다. 혜총·원행·정우·일면 스님이 출마했지만, 선거를 이틀 앞두고 혜총·정우·일면 스님이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종단이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9월 28일 치러진 선거에서 원행 스님은 315표 가운데 235표를 얻어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첫 '무투표' 당선 기록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종단을 이끌었으나 취임 직후인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해외 반출 성보문화유산 환수,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지지를 받은 진우 스님은 2022년 8월 11일,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총무원장 후보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된 사례로 기록됐다.

"총무원장 선거, 종책 경쟁 돼야"

직선제추진본부 등 대화마당
5대 비전·7대 개혁 과제 제시
"복합위기 시대 공공불교 전환"
참종권 확대·종단 시스템 개선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의 미래 비전과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가 인물 중심 경쟁을 넘어 종책 중심 선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와 실천불교승가회 등은 7월 13일 서울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에서 '새로운 30년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법인 스님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저출산·고령화, 종교인구 감소 등 복합위기 시대를 맞아 조계종 역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종단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법인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이 제도적 틀을 세운 개혁이었다면 지금은 변화한 시대에 맞는 '제2의 종단개혁'이 요구된다"며 "조계종이 수행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종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종단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선택하는 '종책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보자들이 종도의 참종권 보장과 수행공동체 회복, 재정 공공성 강화, 미래세대 육성 등 장기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30년의 비전으로는 △종도가 주인인 종단 △수행과 전법 중심의 승가공동체 △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불교 △중앙과 교구가 함께 운영하는 분권형 종단 △미래세대가 희망을 갖는 지속가능한 종단의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개혁 과제로는 △종도의 참종권 보장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사찰 재정의 공공성 강화와 교구 공영재정체계 구축 △수행권 보장과 보편적 승려복지 구현 △조계종 정체성에 기반한 대중 명상수행체계 정립 △새로운 리더십과 시스템 혁신 △디지털혁명과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종단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미래 성장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종도의 참종권 확대와 민주적 운영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법인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과 종책 결정 과정에 종도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과 교구, 승려와 재가불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종도 참종권 확대와 종단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현진 스님(여의도 포교원장)은 "현재 승가에는 종단 미래와 발전보다 특정 카르텔에 얽매여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종단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종도의 염원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문 스님(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은 "종단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제도가 자리잡으면 총무원장 선거의 과도한 경쟁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영 스님(수원사 회주)도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있고, 오늘과 같이 종단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가 대중운동으로 확산돼 활발한 토론의 장이 지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원경 스님(심곡암 주지)은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인 대중공사 정신을 되살려 현시점에 대한 재평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